

김훈 선생의 「중국불교사에 있어서 원효의 위상」을 읽고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1. 중국을 연구하는 입장

방대하고 유구한 문화와 역사를 갖춘 중국이 현실적으로 실재하고 있다. 일정한 영토를 가지고 있고 그 나라를 구성하는 인민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군대를 보유한 그런 중국이 있다.

이런 중국에 대하여 어떤 중국 연구자들은 중국을 대상화 하여 방법적으로 연구하기도 한다. 그 나라 사람들의 종교는 어떻고, 정치는 어떻고, 문화는 어떻고, 경제는 어떻고, 역사는 어떻고. 자연과학자들이 자연현상을 연구하고 우주 및 물질 생명현상 등을 연구하듯이 말이다. 이 양자의 공통점은 대상에 대한 자기 자신의 지적 호기심 해소를 포함하여, 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자신을 포함한 인류의 행복을 추구한다. 대상에 대하여 어떤 도덕적 가치나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비록 경우에 따라 대상의 정교함과 신비함에 감탄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경배하지는 않는다.

한편, 이와는 달리 어떤 중국 연구자들은 중국을 절대적 가치로 받들고, 그것을 연구하여 그 가치를 수용하고 실천하여 자기 자신을 포함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번영을 추구한다. 이 경우의 중국은 대상이 아니라,

목표이다.

현재의 남한과 북한이 공인하고 있는 과거 역사 속에서, 과연 이 역사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중국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삼국시대의 지식인, 신라와 발해 시대의 지식인, 고려 조선의 지식인들이 중국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그들에게 있어서 중국은 목표이었고 가치였지 결코 수단이거나 방법은 아니었다.

2. 원효를 바라보는 김훈 선생의 시각

그런데 여기 아주 특별한 인물이 있으니 원효스님이 바로 그 사람이다. 원효는 자신이 살고 있던 동시대의 중국 지성계와 상호교류하고 있다. 이 점은 조선시대에 퇴계나 율곡이 송나라의 주자를 운운하는 것이나, 조선시대의 서산 대사나 백파공선 스님이 당나라의 임제의 현 선사를 운운하는 것과는 류를 달리한다. 하나는 상호적이고 하나는 일방적이다.

김훈 선생의 「중국불교사에 있어서의 원효의 위상」이라는 발표원고를 접한 본인은, 그가 <중국불교사>라는 시야 속에서 원효를 다루는 점이야말로 높은 안목이라고 생각한다. 원효에게는 당나라이니 신라이니 하는 19세기말에 생성된 개념인 ‘국가’ 의식이 아니라, 동시대에 하나는 경주 땅에서 활동하는 불교 수행자, 하나는 장안 땅에 사는 불교 수행자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의식은 후세로 내려 오면서 특히 조선의 유학자들에게는 전혀 볼 수 없는 요소이다. 조선 지성계는 중국을 대상화 하여 연구하지 못하고 그저 수용과

승배의 대상이었다. 중국불교사의 지평에서 원효를 자리 매김할 수 있는 것은 원효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이런 원효의 특징에 착안한 김훈 선생의 안목 또한 이 분야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고 생각한다.